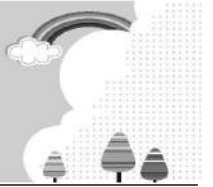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꽃보다 열매

권○선 / 서○여자○업고등학교

몇 년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꿈을 많이 가지려고 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건설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그냥 “어릴 적 꿈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멋져 보였다. 나도 꿈을 이뤄서 내 아들, 딸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다. “엄마는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이뤘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꿈을 이루는 길은 막막해 보였고, 나는 꿈수를 쓰게 되었다. ‘어렸을 때 꿈을 여러 가지로 꾸면, 그중 하나만 이루어도 꿈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난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소년이다. 잔머리가 조금 남다르지만 그것만 빼면 평범한 고등학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꿈이 바뀌기도 했다. 이때 가진 꿈 중에서는 사흘도 못가 포기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아주 어릴 적엔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 사실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다. 몇 달 전,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일기장에서 10년 전 내 꿈을 만난 것뿐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이 멋있어 보였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내 꿈은 연예인 하나뿐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 시작은 언니가 학교에서 빌려온 한 권의 책이었다. 김현근 작가가 쓴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라는 책을 보며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내 꿈의 변천사는 여기서 끝난다. 중학교 때는 꿈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여○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내 꿈이자 목표는 ‘서○여○ 입학’단 하나였다.

그 후로 나만의 ‘서○여○ 알리기’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미 혼자 한번 다녀온 입학설명회에 엄마와 함께 다시 가기도 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이야기를 했다. 홍보책자를 보며 평균 취업률이 얼마고, 평균 연봉이 얼마고 하는 내용을 읊기도 하고, 학교 기사가 나오면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도 했다. 서○여○에 입학한다면 어디에 취업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서○여○과 함께 하는 내 미래를 어필하기도 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던가, 결국 부모님은 내 선택을 지지해주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을 때는 친척들과 회사 분들에게 내 사랑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꽃보다 열매, 이 말은 나의 좌우명이다. 사람들은 향이 좋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장미꽃을 좋아한다. 하지만 꽃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꽃은 언젠가 시들기 마련이니까. 열매는 겉모습이 꽃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에게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씨앗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나는 겉모습이 화려한 꽃보다는 속이 짙 찬 열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넌 응원해

이○미

유치원에서 친구가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줄넘기만 가지고 들락날락 거리던 아이는 어느새 줄넘기 달인이 되었고, 공룡을 좋아하는 동생에게 질세라 함께 치열하게 공룡 다큐멘터리와 공룡책을 보던 아이는 이제 동생을 뛰어넘는 공룡박사가 되었지. 친구들이 그려준 예쁜 그림편지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 가방 내려놓을 새도 없이 연습장을 몇 장씩 써가며 그림을 따라 그렸더랬지. 친구의 편지에 대한 반가움을 느낄 여유는 없었지만 결국은 마음에 찰 만큼의 그림을 그려 냈을 때 그 아이의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은 잊을 수가 없구나. 이게 바로 너야.

이런 것들이 우리 ○이에게 얼마나 큰 성취감을 주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아는데도 그런 모습이 싫었던 적이 있었어. 엄마가 살아보니깐 세상은 너무나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고, 엄마는 그 경쟁에 떠밀려 내가 누구인지, 난 뭘 좋아하는 아이인지, 어떨 때에 난 행복한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았거든. 덕분에 어린이라 불릴만한 시절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같아. 그냥 아기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느낌이랄까? 이렇게 성숙해질 새도 없이 어른이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단다. 엄마는 ○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단다.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는 은행원도 있는 법이고, 요리를 잘 하는 피아니스트도 있으며, 글을 잘 쓰는 운동선수도 있는 법이니깐 말이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건 그건 세상에 하나뿐인 ○이란단다. 이제는 항상 ○이를 응원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단다. 엄마가 너의 조력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건 단 두 가지란다.

하나, 세상을 궁금해 하는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간직하길 바란다.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처럼 항상 궁금해 하고, 더 알기 위해 노력하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가 좋아하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을 놓아버리지 말거라. 모든 창의성은 전문성에서 시작 되는 거란다. 자기가 많이 알고 애정이 있는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란다.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면 즐거운 마음으로 파고들어라. ○이의 장점이 십분 발휘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거기에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모두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깊고 진중한 사람은 반드시 독서를 많이 한단다. 공대를 가서 연구원이 되어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도, 혹은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인문학에서 비롯된 지성은 널 어느 누구와도 다른 너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너의 인생에서 하는 모든 소중한 경험들이 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후회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니 후회하더라도 그로인해 흔들리는 자신의 불안함까지도 잘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 그리고 언제나 널 응원한다. 너의 영원한 친구이고 싶구나.